

로마서 묵상 49
(4/16/2021, 금)

찬양: 305(405)(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1:11-17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족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실족했지만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며, 그들의 실족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심을 가짐으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이스라엘의 실족에 담긴 의미.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11 절)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실족한 것은 맞지만 회생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한다.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한 상태를 의미한다. “실족하였느냐”라는 것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혹은 ‘미끄러지다’의 의미이며, 어떤 타격을 받아 심하게 비틀거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타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상황에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님을 말씀한다.

바울은 12 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씀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얻는데 실패한 것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상황이 연결됨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함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전개해 나가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의 복음의 거부와 이방인의 복음의 수용이 묘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게 된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신다는 것이다(11 절).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다.

바울은 만약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성함을 이룬다면,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더 큰 풍성함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유대인이 회심한다면 그것은 더욱 긍정적이며 복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말이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준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바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약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큰 회심과 신앙고백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교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여긴 바울. 바울은 유대인은 실족했지만 이방인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13-14 절)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13 절)라고 말씀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으로 사역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썼음을 알게 한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을 자극하고 시기나게 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15 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는 위의 구절의 말씀과 연결된다. 아울러 같은 15 절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날 성도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16 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씀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은 이스라엘 족장들이며, “떡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뿌리”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며,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은 17 절 말씀에서, 구원받는 이방인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인바 된 돌감람나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17 절 -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가 접붙인바 된 이유는 참감람나무 가지 중 얼마가 꺾였기 때문이다. 이 때 “꺾이었는데”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흥미롭게도 이방인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인바 된 돌감람나무에 비유했다.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이방인을 선택하셨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도 나중에 알았음을 말씀한 것이다. 그러한 이방인들이 마치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17 절) 이라고 말씀했다.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갈망하며 간절히 소망한 바울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자.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두 그룹을 함께 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있음을 영광스러워했다. 바울은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보았으며,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뒤집어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심지어 주님을 강하게 배척하는 이슬람권을 비롯한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를 통해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진행 중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인바 된 은혜를 입은 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원래의 가지를 꺾으시고 접붙이신 주님은 접붙인바 된 가지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가차없이 꺾으실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으로도 다가 온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2. 우리를 주의 은혜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영적인 빛진자로서 주님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오늘도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

소서(시 19:14).